

수소 · UAM ·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

□ 목차

구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수소	경북, 기체인 수소를 고체 금속에 저장... 안전한 청정에너지 수소시대 선도(2025.02.26.) ...	1
	광주 미래차·울산 수소산단 ... 그린벨트 풀어 첨단산업 유치(2025.02.25.)	1
	파주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69억 원 지원...승용차 최대 3천250만 원(2025.02.25.) ·	2
	광양시·시의회, 독일 수소도시 벤치마킹(2025.02.25.)	2
	수소특화단지 삼척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2025.02.25.)	2
	충청남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준비 나섰다(2025.02.25.)	3
	진주시, 대용량 충전소 '호탄동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준공(2025.02.25.)	3
UAM	고양 시장 "AI로봇·UAM 등 전략산업분야 신생기업 유치 필요"(2025.02.26.)	4
우주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조기 제정해달라"(2025.02.20.)	4
	최학범 의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2025.02.20.)	5
	"우주산업·제주사랑 열기"(2025.02.21.)	5
구분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수소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산업 떠받치는 주춧돌 자리매김(2025.02.26.)	6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시민단체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방문(2025.02.26.)	6
우주	우주항공청, 'DSK 2025' 26일 부산 벡스코 개막(2025.02.20.)	7
	KTR, 항공우주 필수 '아웃가싱' 시험평가 시작(2025.02.20.)	8
	6G·우주통신' 시대 대비...ETRI, 초공간 네트워크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2025.02.25.)	8
구분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수소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클러스터도 조성(2025.02.26.)	9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올해 내 첫삽들 수 있을까(2025.02.26.)	9
	"中전기차 공세부터 막고 봅시다"...현대차·도요타 동맹, 수소차·로봇 협력(2025.02.20.)	10
UAM	韓은 'UAM' 중은 '분리형'... '하늘나는 차' 개발 속도전(2025.02.26.)	10
우주	한화, 매년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 우주학교'(2025.02.23.)	11
	국립창원대·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인가(2025.02.21.)	11
	순천시-KAIST,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 간담회(2025.02.21.)	12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 경북, 기체인 수소를 고체 금속에 저장… 안전한 청정에너지 수소시대 선도(2025.02.26) - 경북도와 국립금오공대가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 운송할 수 있는 수소고체저장기술에 기반한 민군겸용 수소에너지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소시대 개막을 선도 중. 현재 수소 저장·운송법으로는 고압가스, 액화수소, 고체저장, 암모니아 등 화합물 저장 방법이 있으며, 수소가 대중화되기 위해선 높은 저장·운반비 절감이 필수 - 국립금오공대 스마트그린제조혁신사업단은 카트리지 교환 방식의 수소자전거를 지역 벤처기업과 개발한 데 이어 지난해 말 민군겸용 50W급 이동형 수소고체저장시스템 개발에 성공. 이 수소자전거는 일반 배터리로 50km, 고체저장수소카트리지로 100km 총 150km 주행 가능. 카트리지는 티타늄과 망간계열 수소 저장합금을 이용해 충전에 1분도 안 걸리며, 충전 압력은 10바(bar)로 자전거 타이어 공기압 수준 - 최근 개발한 이동형고체저장시스템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출력저하 없이 전력 공급 가능. 경북도는 구미시, 금오공대 등과 함께 수소 고체저장기술에 기반한 민군겸용 수소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모색 중. 저장합금 카트리지, 수소연료전지 스택, 에너지 저장·활용 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이를 전기자전거, 캠핑용 전원, 군사장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 예정 □ 광주 미래차·울산 수소산단 … 그린벨트 풀어 첨단산업 유치(2025.02.25) - 정부가 17년 만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풀어주기로 결정.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절박함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강도 증가로 정부 내 위기감이 최고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는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 강조 -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한 것.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울산 수소융합밸리 산단 등 총 27조8000억원 규모 사업 포함. 특히 울산 수소융합밸리 산단(9709억원)은 수소경제 활성화와 지역 산업 구조 혁신을 위한 중요 사업으로 선정 - 울산권에서는 수소융합밸리 산단 외에도 U-밸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 등 3곳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 창원과 울산권에서 지역전략산업이 많이 선정된 이유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창원 88.6%, 울산 81.2%로 특히 높아 그간 개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 이번 조치로 수소산업 등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역 첨단산업 발전 기반이 마련될 전망 □ 파주시,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금 69억 원 지원·승용차 최대 3천250만 원(2025.02.25) - 파주시가 총예산 69억 원을 투입해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 지원 대상은 승용차 190대와 고상버스 2대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시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이 대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는 조건이 있어 구매 희망자는 출고 일정을 미리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3천250만 원, 고상버스 1대당 3억5천만 원으로 책정. 승용차의 경우 1인당 1대, 1개 업체당 3대로 지원 대수가 제한되어 형평성을 고려. 이번 지원 사업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대기 환경 개선, 수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파주시의 환경 정책 일환으로 진행 - 수소차 구매 절차는 구매자가 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지원금 신청 및 차량 출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를 통해 구매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편리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파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광양시·시의회, 독일 수소도시 벤치마킹(2025.02.25) - 전남 광양시와 시의회는 지난 16~22일 5박 7일간 유럽 수소 기술 선진국인 독일을 견학하고, 광양시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협력 방안을 모색. 방문단에는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했으며, 베를린의 지멘스 에너지를 먼저 방문하여 기가와트급 수전해 공장 및 자동화 생산 라인을 견학 - 방문단은 이어서 독일 로이냐에 위치한 프라운호퍼 풍력에너지시스템 IWES 연구소(수소 연구소)를 찾아 야외 테스트 필드에 설치된 컨테이너형 최대 5MW급 수전해 장치 및 수소 분석·정제 시스템을 견학하며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 특히 프라운호퍼 IWES 연구소는 KENTECH(한국에너지공과대학)과 산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어 수소 관련 기술 협력에 유리한 여건 - 광양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프라운호퍼 IWES연구소와 광양 수소도시 사업 및 수소 생산시설 자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활용 관련 소재·부품·시스템 개발 및 검사 등 연구개발 협력,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수소 가치사슬 기업 육성,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협력 및 수소 생산시설 자문 등의 내용을 포함. 이를 통해 광양시가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선도할 기반 마련 □ 수소특화단지 삼척시…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2025.02.25) -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된 강원도 삼척시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근덕면 광태리 제2농공단지 일원에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를 비롯해 수소특화 산업단지 및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등을 다음 달에 일제히 착공 예정 - 수소특화 산업단지는 근덕면 동막리 일대에 13만8691㎡ 규모로 조성되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일반 산업단지 형태로 계획. 단지 내에는 수소 관련 기업을 위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전용 부지, 기업지원센터, R&D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도 건립되어 유망 수소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 - 박상수 삼척시장은 “신뢰성 평가센터와 임대형 공장은 올해 내 준공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반 시설이 완료되면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 첨단 수소산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삼척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삼척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
	□ 충청남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준비 나섰다(2025.02.25) - 충청남도가 수소 생산·저장, 수소 활용(발전) 분야 중심의 수소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와 필요성·타당성 마련에 집중.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1기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수소특화단지 지정 예비단계인 예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진행할 계획 - 당진시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실행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진행 방향과 수소산업 중점 육성 방안, 예비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 계획 등을 공유. 보령시도 올해 상반기 예비수소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준비 중이며, 보령 블루수소 플랜트, 수소 발전, 수소도시, 수소 가스터빈 시험평가센터 등 다양한 수소 관련 기반을 활용한 수소특화단지 계획 수립 - 수소특화단지는 수소 관련 기술·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특별 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시 보조금 우대,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및 개발 제품 실증·시범 보급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도 관계자는 “도내 수소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시군과 지속 소통·협력하고, 정부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도내 시군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강조
	□ 진주시, 대용량 충전소 '호탄동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준공(2025.02.25) - 진주시는 지난 2021년 서부경남 1호 판문동 수소충전소를 개소한 데 이어 24일 시간당 300kg의 수소 충전 설비를 갖추고 하루 최대 15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코하이젠의 '호탄동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준공식 개최. 이날 준공식에는 진주시 관계자 및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이경실 코하이젠(주) 대표, 진주시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 - 호탄동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는 수소경제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버스·화물차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로 국비 42억원, 민간자본 38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 진주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부지 1981.43㎡를 제공하고, '2022년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전문 기업 코하이젠(주)이 시공·운영을 담당 - 이 충전소는 시간당 300kg의 수소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 충전소로 버스·트럭 등 수소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수소상용차 충전에 최적화. 시간당 약 15대의 버스와 약 60대의 승용차 충전이 가능하며 2기의 충전기 운영으로 수소차 2대의 동시·연속 충전도 가능. 진주시는 호탄동 충전소에 이어 문산휴게소 및 집현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내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고양 시장 "AI로봇·UAM 등 전략산업분야 신생기업 유치 필요"(2025.02.26)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6일 백석별관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에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기업유치 총력 강조. “일산테크노밸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 고양시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적극 홍보해 기업경영이 어려운 도시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 특히 AI로봇, UAM, 자율주행 등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전략산업분야 신생기업 유치 방안 강구를 요청 - 민선8기 시정목표 중 하나인 '시민 우선 소통시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행정 실현도 당부. “우리 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직소민원 소통의 날'을 정례화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강조.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성 제시 - 이 시장은 GTX-A 이용자 90%가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지난해 킨텍스역과 대곡역을 중심으로 총 35개 버스노선을 신설 및 조정해 GTX-A 및 교외선과의 원활한 환승 체계를 구축했다”며 교통 인프라 개선 성과 소개.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통팔달 교통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약속. UAM과 같은 첨단 교통수단 도입도 이러한 교통 허브 도시 비전의 일환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중앙부처	- (해당 없음)
지자체	□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조기 제정해달라"(2025.02.20) - 박동식 사천시장이 국회를 방문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 지난해 11월에 이어 18·19일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 특히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과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 당위성 설명 - 박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여야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학연 클러스터와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툴루즈로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예타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역설 - 해당 특별법은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발의하여 지난해 8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회부된 상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행정타운, 산업단지, 주거지구, 상업·관광시설이 결합된 자족형 도시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에 조성돼 행정, 산업, 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 중 □ 최학범 의장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건의 (2025.02.20)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안을 정부에 건의. 이 건의안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곧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로 전달될 예정 - “남해안권은 경남·부산·전남을 아우르는 경제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국가적 자원“이라며, “남해안권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서, 심각하고도 과도한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여 지역이 잘 살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 두 법안 모두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 - 최 의장은 “두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제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남해안권발전특별법 신속 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회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는 다음달 25일부터 26일까지 경남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임 □ "우주산업·제주사랑 열기"(2025.02.21) -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이 제주 민간우주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 제주도는 20일 한화시스템 판교사업장에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도내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 이번 만남에서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제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 제주한화우주센터는 제주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양 기관은 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 또한 제주도 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등을 통한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역 내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적 기반 마련에 합의. 이를 통해 제주도는 우주산업의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사랑을 실천하는 한화시스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제주도와 한화시스템 간의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약속. 이번 협력은 우주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업 육성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산업 혁신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시도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 국가 및 지방기관 연구 동향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산업 떠받치는 주춧돌 자리매김(2025.02.26) - 한국가스기술공사가 2019년부터 수소 생산, 공급(충전소), 운영, 정비, 안전관리, 기자재 국산화 등 수소 산업 전주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수소 사업을 추진해오며 사업 규모와 인지도 면에서 국내 수소 산업의 주춧돌 역할 수행 중. 고압으로 운영되는 천연가스 설비 유지·정비 분야의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소 인프라 EPC사업에서 선도적 위치 확보 - 공사는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수행 역량을 기반으로 보령시 등 3개 지자체(평택·보령·당진)에서 수소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는 1기에 지정된 6개 수소 도시 중 50%를 점유하는 성과. 향후 2기, 3기 수소 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로 사업 확대 기대. 수소 인프라 운영 분야에서는 직접 구축한 생산기지 3개와 전국 20곳의 수소충전소 안정적 운영 - 국내 최초로 수소 전문기업들이 개발한 수소 관련 제품을 원스톱으로 시험·평가·지원하는 '수소 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를 대전시와 협력해 구축·운영.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성능평가를 지원하며, 향후 부족한 수소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운영에 주력할 계획. 기술과 노하우를 민간기업과 공유하고 UAE 등 해외 수소 인프라 구축시장 진출도 추진
지방기관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시민단체와 부산대 수소선박기술센터 방문(2025.02.26) -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지난 25일 부산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에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지역 R&D 현장 공감 투어'를 성공적으로 개최. 이 행사는 지역 R&D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역 소재 대학 연구시설 및 기관과의 연구개발 정보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진행 - 투어에는 BISTEP 김영부 원장과 임직원, YWCA와 YMCA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하여 수소선박기술센터 소개와 수행 중인 R&D 사업 설명을 듣고 지역 산업 파급 효과 및 후속 R&D 사업 기획·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이후 시험동에서 수소 연료 기반 친환경 선박 개발을 위한 핵심 설비를 둘러보며 미래 해양 산업의 혁신 현장 체험 - 수소선박기술센터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소선박 연구개발 특화 전문 연구기관으로, 수소 연료전지 기반 선박 개발, 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 수소 연료 공급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시스템 성능 평가 등의 연구를 진행. 수소선박 상용화를 위한 기술 인프라 구축 중이며 조선해양산업 기술 최강국의 브랜드를 미래 시장에서도 친환경 수소선박 기술 최강국으로 이어가는 목표 추구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해당 없음)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국가기관	☐ 우주항공청, 'DSK 2025' 26일 부산 벡스코 개막(2025.02.20) -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드론쇼 코리아(DSK 2025)'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예정.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본 행사는 행사명을 'DSK'로 새롭게 단장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15개국 306개사 1130부스가 참여하는 전시회와 9개국 44명의 연사 및 좌장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구성. 주한 해외 대사를 비롯한 20개국의 군 장성, 경찰, 정부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 - 올해부터 주최 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 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발사체 및 위성 분야 핵심 기술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결과물,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소개할 예정 - 학술대회는 26일~27일 이틀간 진행되며, 1일 차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지개혁·농촌개발부 차관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문위원이 기조 연사로 나서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발전 방향을 조망. 콘퍼런스에서는 드론 상용화, 법·정책 및 기술, 글로벌 진출 사례, AI, 미래 동력원, 지속 가능한 항공 세션이 진행되며, 26일 저녁에는 '미래를 여는 연결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600대 불꽃드론쇼가 벡스코 야외 상공에서 펼쳐질 예정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 KTR, 항공우주 필수 '아웃가싱' 시험평가 시작(2025.02.20)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항공우주 분야 필수 테스트인 아웃가싱 특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발표. 아웃가싱은 고온·진공 상태에서 소재에 포함된 휘발성 물질을 방출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 현상으로 인해 항공 우주 부품의 광학 표면 및 센서가 오염되면 주요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NASA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테스트. KTR은 특히 이번 신규 시험장비 개발로 ASTM의 E595 표준에 맞춰 소재의 아웃가싱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실정 - 이번 서비스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외 시험기관에 의존해 왔던 항공우주 관련 업체들은 KTR을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KTR이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총질량손실(TML)과 휘발성 응축물질(CVCM) 특성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어 타 기관 대비 시료량 절감과 소요시간 단축 등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개발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김현철 KTR 원장은 “이번 아웃가싱 시험장비 개발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아직 미흡했던 항공우주 분야 시험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KTR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이로써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6G·우주통신' 시대 대비··ETRI, 초공간 네트워크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2025.02.25)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초공간 네트워크 분야 국가전략프로젝트 '에이블 맨(ABLE-MAN)'의 전략발표회를 개최. '에이블 맨'은 6G와 우주통신 시대를 대비해 이동통신 공간 확장을 위한 위성통신 핵심기술(다이렉트 셀룰러, 위성 엣지 컴퓨팅, 3D 오픈랜, 지능형 협력 네트워킹 등)을 확보하고, 2035년 약 116조 원으로 추정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글로벌 장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번 전략발표회에서는 에이블 맨 기반 서비스 시나리오, 시장 수용성, 비용-편익 분석, 생태계 내 역할 정의 등을 폭넓게 다루며 국가전략프로젝트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 특히 ▷국방 분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체계' ▷제조·물류 분야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모빌리티 분야 'Connected-UAM 자율비행 관제' ▷통신·센싱 융합 분야 '초광역 실시간 경보체계' 등 에이블 맨을 활용한 4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소개 - 산업계에서도 에이블 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 L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T Sat 등 주요 기업이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구 개발 추진방향을 제안했으며, 6G 포럼과 위성통신포럼은 협력주체별 역할 분담을 제시. ETRI ICT전략연구소 한성수 소장은 “에이블 맨은 국가임무 관점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형 과제로, 출연연을 비롯한 협력주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강조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지방기관	- (해당 없음)

□ 민간 관련 기관 및 행사(포럼, 세미나, 토론회) 주요 내용

☞ 수소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BS한양, 여수 묘도에 수소클러스터도 조성(2025.02.26) - BS한양이 여수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에서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생산 및 공급 프로젝트 추진 중. 묘도 수소 클러스터는 LNG터미널, 청정수소 수요처인 열병합발전소,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액화CO2터미널을 포함하여 전라남도·여수시와 공동으로 진행. 연간 최대 약 10만t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목표 - 묘도 수소 클러스터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액화·저장할 때 LNG 터미널의 냉열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대폭 절감하는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 이러한 비용 효율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며, 지난해 12월 묘도 열병합발전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용량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가속화 - BS한양의 수소 클러스터는 LNG 저장·공급, 청정수소 생산, CO2 포집 및 활용이 통합된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글로벌 수소 및 CCS 기업들과 기술·투자 협력도 활발히 추진
	□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올해 내 첫삽뚫 수 있을까(2025.02.26) -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사업이 올해 내 착공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해양매립 등 관련 허가절차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첫 삽을 뜰 일만 남았다'는 분석이 지배적.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제철공정을 청정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탄소 저감이란 중요한 이점 보유 - 포스코는 탄소배출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2009년부터 수소환원제철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2020년 본격적인 수소환원제철 전환 로드맵 수립. 포항제철소 앞바다 공유수면 132만2천300여㎡를 매립해 5투기장을 조성한 뒤 이곳에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소를 짓는 청사진 발표. 지난해 4월에는 전기용융로(ESF) 시험 설비로 쇳물 생산에 성공 - 기획재정부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등 행정 지원에 나서며 당초 2026년 5월이던 절차 완료 시점을 2025년 6월로 11개월 앞당김.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함께 포항시도 수소환원제철 추진에 호의적 반응을 보이며 지역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지원 의사 표현. 40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中전기차 공세부터 막고 봅시다"...현대차·도요타 동맹, 수소차·로봇 협력(2025.02.20) - 글로벌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한일 간 민관정 협력이 속도를 내고 있음. 다음달 일본 도쿄에서 현대자동차그룹과 도요타그룹, 양국 정치권 및 관계부처 관계자가 만나 수소분야 협업을 본격화할 예정.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행사에는 주호영 한일의원연맹 회장, 이종배 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과 오부치 유코 일한의원연맹 부회장을 포함한 일본 의원들이 참여 - 이번 행사는 지난해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수소 분야 협력에 합의한 데 이은 조치로, 도요타는 한국 국회의원들을 본사로 초청해 수소 관련 제품 생산 공장을 공개할 계획. 양국은 아직 국제 표준이 없는 수소 충전 기술의 표준화, 수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 관련 규제와 기술표준화 협력, '청정 수소' 기준 통일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협력 강화의 배경에는 수소연료전지 기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 양사의 공통 관심사가 작용 - 현대차그룹과 도요타의 협업은 지난해 10월 '현대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에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참석하면서 가시화. 두 그룹은 모터스포츠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개발 협력을 약속했으며, 현대차그룹 산하 보스턴다이내믹스와 도요타리서치연구소는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협업도 추진 중. 이러한 협력은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공세에 대응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
기타	- (해당 없음)

☞ UAM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해당 없음)
대학교	- (해당 없음)
해외	□ 韓은 'UAM' 中은 '분리형'... '하늘나는 차' 개발 속도전(2025.02.26) -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미래사업 영역인 플라잉카(도로 주행 가능 항공기)와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중국 자동차 회사 체리차는 최근 칭화대와 공동 개발한 모듈식 비행 자동차 특허를 공개했는데, 이는 3단 모듈 방식으로 상단 비행 모듈, 바퀴가 달린 하단 구동 모듈, 사람이 탑승하는 조종석 등으로 구성. 지난해 11월 처음 공개된 이 전기차는 최대 2명 탑승, 최대 1km 고도, 시속 120km 비행 속도, 40분 비행 가능 -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은 차에 들고 다니는 분리형 플라잉카 개발 중.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자회사 에어로HT는 2명이 탈 수 있는 분리형 비행체를 탑재한 전기차 '육지항모'를 내년 출시 계획.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5~6회의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짐. 이처럼 중국 기업들은 자동차와 항공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이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현대차그룹은 차와 합쳐진 비행체 대신 UAM으로 승부수를 띄움. 현대차 독립법인 슈퍼널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S-A2'를 개발 중이며, 이는 최대 시속 200km, 고도 400~500m에서 비행하며 도심 내 약 60km 거리를 오갈 수 있음. UAM 개발을 위해 슈퍼널은 하니웰과 BAE시스템 등 항공 업계 부품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현대차그룹 내 다양한 계열사들이 기술개발 지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경쟁 차원에서 현대차의 S-A2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제기
기타	- (해당 없음)

☞ 우주 분야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민간기업	☐ 한화, 매년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 우주학교'(2025.02.23) - 한화가 지난 1월 11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주 영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 3기 성과발표회 및 수료식을 개최. '우주의 조약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시스템, 쉘트렉아이 등 계열사와 함께 만든 우주사업 협의체 '스페이스 허브(Space Hub)'가 KAIST 항공우주공학과와 진행하는 한국판 'NASA 우주학교'로, 2022년부터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음. 이 프로그램은 연구 과제 선정부터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경험형 교육 방식을 채택 - 수료식에는 수료생 가족들과 함께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정률 KAIST 항공우주공학과장,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높임. 3기 학생들은 성과발표회에서 △레이저를 활용한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 △소행성 궤도 변경 우주선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태양 가림막 위성 △우주 태양광 발전용 집광 설비 △친환경 우주발사체 △우주 쓰레기 재활용 프로세스 등 지난해 7~12월 교육 기간 동안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주기술'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 - 수료생 전원에게는 KAIST 총장 수료증과 함께 NASA 탐방, KAIST 영재교육원 수강 등 후속 교육 기회도 제공되어 지속적인 발전 경로를 마련. 최지아 3기 수료생(광주 동아여중 2학년)은 "우주를 연구하는 꿈을 이루게 된다면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경험할 수 있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우주 분야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힘. 이 프로그램은 미래 우주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대학교	☐ 국립창원대'사천우주항공캠퍼스' 설립인가(2025.02.21) -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사천우주항공캠퍼스'의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인가를 받아 오는 3월 개교한다고 21일 발표. 사천우주항공캠퍼스는 사천시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천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조성. 이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 - 사천우주항공캠퍼스에서는 우주항공공학부 학생과 유관 학과 학생들이 전공교과, 현장실습, 산업체 연계 비교과 과정 등을 수업하게 됨. 우주항공공학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으로 신입생 15명을 선발하고, 점차적으로 학부 정원을 증원할 계획. 교육과정은 1~2학년은 창원캠퍼스에서 글로벌첨단과학기술대학(GAST)의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을 활용해 기초과학 및 기본 교양 수업을 받고, 전공실습 교육은 사천우주항공캠퍼스에서 진행할 예정 - 3학년부터는 학생들이 사천우주항공캠퍼스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집중적인 전공 교육을 받게 됨. 박민원 총장은 “사천우주항공캠퍼스가 안착될 때까지 지역과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에서 꼭 필요로 하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과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힘. 이로써 국내 우주항공 교육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순천시-KAIST,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 간담회(2025.02.21) - 순천시가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우주항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이번 행사에는 우주항공계열 최고권위대학 KAIST 항공우주공학과 이정률 학과장을 포함한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총 12명 등 전문 교수진들이 참석하여 전문성을 높임. 간담회는 항공우주공학과 이정률 학과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시의 우주항공산업 추진현황 공유, 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 협력 추진, 시의 우주항공산업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 - 정책제언으로는 ▲우주항공·방산 입주기업 인력의 정주지원 ▲관광·교통 거점 주요시설의 산업 연계 활용 ▲기업의 자발적 입주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건해가 제시됨. 이정률 학과장은 “발사체 조립은 우주로 가는 길을 놓는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발사체 사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순천시의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의 중요성을 평가. 향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 - 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방산 관련 인프라 구축, 고도화된 기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R&D, 인력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며 “시는 관·학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산업생태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순천시는 국내 최대 규모 발사체 단 조립장 유치를 시작으로 국가 우주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KAIST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
해외	- (해당 없음)
기타	- (해당 없음)